

큰스님 수행한담

개인이나 국가번성

“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는 공부 쌓아야 제항기 제밧깔 드러낼수 있어요 ”



○월산스님이 주석하며 제방의 선수행자를 제정했던 불국선원 전경.

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종교관과 생활관은 어떠해야 하는지요. “신라시대 때는 왕사나 국사가 있었지요. 그들이 국정의 지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야말로 자유 민주주의 시대라, 어떠한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기엔 난감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쫓대물 지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나 보고 의지해서는 민족의 쫓대가 사라집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는 특별히 쫓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이란 곳이 참 중요한 곳인데 무엇들을 연구하는지……. 정말이지 우리에게 맞는 사상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도의 경

- 참선 수행을 위해서는 꼭 선지식을 찾거나 종교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사람의 마음이 일어설 때 다르고 앉을 때 다르지요. 불교 외에 기독교나 유교에서도 좋은 것은 따르세요. 지금은 열린 시대입니다. 정세계가 한집인데 자기 식의 고집이나 욕심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분명한 쫓대가 있어야겠지요.” - 말씀에 감읍합니다만 현실의 갖가지

는 체’ 하지 말고요. 특히 스님께서는 교육의 방법과 질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강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이나 지도층이 우선하여 실천해 보일 것을 당부하시니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의 영역이 지식인이나 지도층에 이르자 빙그레 웃으시며 빼 있는 한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 공인은 사심을 보여서는 안돼요 지도자는 종교 믿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

라 할지라도 일상 생활 속에서 추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한동안의 은둔 생활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자기와 동류인 중생을 버리고 자기만의 행복과 구제에 대해 생각하며 일생을 보낸다면 분명 자비 정신이 근원인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비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증오의 채찍을 휘두른다면 이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웃을 위하는 자비와 보시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또한 스님께서는 불제자로서의 최고 실천 덕목인 팔정도(八正道)의 ‘중도(中道)사상’을 크게 강조하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다. “만법이 현연용활된 ‘중도의 실상’을 보아야만 천지가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이 나와 일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과 대립의 현실을 조화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지요.” ‘중도의 실상’이라. 언제쯤 우리는 만물의 뿌리와 천지간이 하나라는 굳건한 믿음과 연대의 실상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자연과 인간의 친화 또한 본질적으로 상생(相生) 관계가 아니겠고, “이것이 있는 까닭에 저것이 생겨난다.(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는 사물과 우주의 본질을 긍정하고 드러내는 일을 또하나의 화두로 행겨본다. 끝내 스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로 나그네의 세간사를 위해 열화살 마루에서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시니 그 뒤로 ‘참으로 맑고 투명한 계곡과 산(巖山清澗)’이라는 추사 만년의 글씨가 노원(老院)의 현액으로 잔잔히 빛난다. 인사를 드리고 ‘불이문(不二門)’을 나서는데 느닷없이 산새들이 갑자기 날아든다. 꽃처럼 내달린 까치발과 산새들. 아, 저것이야말로 ‘불이(不二)’의 진정한 표상이 아니던가.

“천지와 나 한뿌리 알면 대립없어요 불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우, 그네들은 근검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아요. 스님께서는 계속 ‘쫓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전직 대통령의 부정 축재에 관해서도 그 인간됨이 쫓대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셨다. 요컨대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쫓대’란 민족 자존에 다름 아니며 무분별한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제 항기와 제 밧깔을 드러내는 참된 삶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던 쫓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까. - 스님,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불자로서의 생활 철학이랄까 수행 지침 같은 것이 있을 법한데요. “나는 한마디로 참선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쫓대없이 남을 따르지 않고 자신으로 돌아오지요. 소원을 성취하고 천하를 얻으려면 참선을 해야 합니다.”

모순 앞에 서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식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진실의 왜곡과 정의의 현실적 부재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이 빚어내는 현상에서도 배울 것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노 前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그가 금생에 벌은 받지 않아도 내 생애는 반드시 그 빛을 갈아야 하고 다음 또 다음생까지 영원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결코 오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의 어려움과 어색함은 한 시간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편안한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21세기의 전망을 여쭙자 기다려주는 듯이 고유 문화의 보존과 참담이 관련된 문제를 피력하시며 우리 민족이 고쳐야 할 점을 일러 주신다. ‘없어도 있는 체’ ‘몰라도 아

건설이란 무엇입니까 문 건설이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말기라하시는데 그러면 주인공이 발휘되어 이고 는 것을 건설이라하는지요? 그러나 건설했다는 스님들의 행적이나 여록을 통해 보거나 또는 경전은 내면의 이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진중·전북 김제시 옥산동>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지식의 묘요 하나는 애비의 묘다. 그런데 불현듯 내가 내게 묻기를, 애비가 지식에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에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는데 그 도리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란 이런 것이더라고 말로 하고 글로 써놓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잘 알아듣고 터득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증득한 것 하고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할 때 한마음주인공을 주장자로 삼아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서 나오는 대로, 부딪히는대로 다시 놓고 또 나오면 또 놓고, 놓고 또 놓아 앞엿 것 없어지고 하다보면 전체가 포괄적인 한마음인 것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아는 게 많아서 향

지 상 상 담 길 들 문 는 이에 게

예전에 어떤 스님이 경전에 대해서 가로 세로 통달을 하셨는데 그 분 말씀이 현실에서 큰 일에 딱딱이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비와 자식이 상봉을 했더라면 그대로 자유스러워서 거릴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깨달아라. 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냥 선과 교가 들어나서 내가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너부터 발견해라. 생활 속에서 일체를 다 주인공 그 놀이 하는 것이니까 다 그 놀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타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내가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나? 내가 가장 잘 증명할 겁니다. 그렇게 그 놀이 있다는 것도 그 놀이 증명할 수 있겠네니 네 놀이 증명하라 하며 믿고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끌고온 장본인, 나를 예까지 진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해야 한다. 그게 건설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남한테 화두를 받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세상이 벌어졌고 무슨 종교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말하자면 나부터 하는 공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4대 성인이란 분들이 다 ‘너 자신부터 알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랬지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무리 많이 안다해도 나를 모른다면 다 헛것입니다. 고로 나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나는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또 그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